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언어 선택을 중심으로

곽 정 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서 영 란

경신청각언어연구소

이 정 옥

대구대학교 수화통역사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언어선택을 둘러싼 양육경험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농아동을 둔 농부모 5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심리적인 충격은 자녀가 수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 대부분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농자녀들이 농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할 때 수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농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수화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은 수화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자녀의 문해지도를 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잘 모르는 내용은 농식 수화를 사용하여 쉽게 설명해 주어 이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 모두는 자신의 자녀를 농학교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농학교 교사의 수화사용능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농부모, 농아동, 언어선택, 양육경험, 질적 연구

* 교신저자(kwak@daegu.ac.kr)

I. 서 론

부모의 언어적 배경과 양육환경은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농아동의 약 90%는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다. 대부분의 청인부모들은 수화를 알지 못하며, 음성언어를 구사하는 부모와 듣지 못하는 농아동 간의 언어불일치는 농아동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언어습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것은 언어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자언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ores & Sweet, 1990). 이에 비해 농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는 약 10%의 농아동들은 부모가 사용하는 수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일관된 수화를 사용하는 농부모 밑에서 성장한 농아동들은 청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농아동에 비해 뛰어난 학업 성취 수준을 보인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인부모 밑에서 성장한 농아동에 비해 보다 나은 사회 경제적 위치를 차지한다(원성옥, 2002; 최성규, 2007a, b; Paul & Jackson, 1993). 이와 같은 차이는 청각장애아교육의 새로운 언어지도 방법인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bilingual-bicultural education)이 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최성규, 1999).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은 제1언어로 수화를 습득한 후 제2언어로 음성언어의 읽기, 쓰기, 음성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접근법이다(아베야스시, 2003).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 주창자들은 청인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라는 대부분의 농아동이 제1언어로서 수화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농부모 밑에서 자라는 농아동의 양육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Mayer & Wells, 1996; Lane, 1999; Parasnis, 1996; 木村, 2007).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중언어 이중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김영옥, 2004; 김철관, 윤병천, 2011; 김미은, 서도원, 윤병천, 2007; 최성규, 1999), 최근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모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최성규, 2007a). 구화법이 언어지도 방법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김병하, 2007), 이중언어 이중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농아동의 조기 양육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농문화의 기반이 비교적 약할 뿐만 아니라, 수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기존의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 관련 연구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농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염동문, 허명자, 이한우(2004)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는 농부모의 건청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건청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수화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농자녀 양육과 관련한 연구들 대부분은 청인부모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세정, 최성규, 2006; 김병하, 강창욱, 1992; 배둘련, 안성우, 백유순, 2002). 최근 들어 인공와우 수술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김병하, 2007; 이유경, 최성규, 2009; 허명진, 이드보라, 2009), 자녀의 인공와우 착용에 대한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박귀매, 이규식, 권순우, 2004; 이한선, 김병하, 2003).

윤미희, 윤미선(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 영유아의 조기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125개의 장애인복지관과 21개의 청각장애학교, 178개의 언어치료실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83%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아동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배경에는 인공와우 이외에는 다른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곽정란,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양육경험을 언어선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농아동을 둔 농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청각장애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둘째,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셋째, 농아동을 둔 농부모는 자녀의 수화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넷째, 농아동을 둔 농부모는 자녀의 문해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다섯째, 농아동을 둔 농부모가 농교육에 바라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언어선택을 둘러싼 양육경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면담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농아동을 둔 농인 어머니 5명이다. 연령은 35~40세에 걸쳐 있다. 어머니 3명은 농학교 고등부를 졸업하였으며, 1명은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나머지 1명은 의무교육 취학유예 제도를 이용해 현재 농학교 고등부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언어 습득 이전에 농이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수화를 사용한다. 이들 모두 농인과 결혼하였으며, 농사회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모두 육아와 가사만 전담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학력	직업	가족 현황
부모 A	35세	일반학교 고졸	가사	남편: 농인, 1남1녀 (큰딸: 농, 작은아들: 건청)
부모 B	37세	농학교 고졸	가사	남편: 농인, 2남 (큰아들: 건청, 작은아들: 농)
부모 C	36세	농학교 고졸	가사	남편: 농인, 2남 (큰아들: 농, 작은아들: 건청)
부모 D	35세	농학교 고등부 재중	가사	남편: 농인, 2녀 (큰딸: 건청, 작은딸: 농) 시어머니(건청)
부모 E	40	농학교 고졸	가사	남편: 농인, 2녀 (큰딸: 건청, 작은딸: 농)

연구 참여자 A, D, E의 자녀는 만 1세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B, C의 자녀는 만 2세에 청각장애진단을 받았다. 자녀의 청력치는 모두 90dB 이상이다. 연구 참여자 A, B, C, E의 자녀는 양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D의 자녀는 2008년 3월 인공와우 수술(오른쪽)을 하였으며, 인공와우 착용귀의 평균역치는 35dB이다. 인공와우를 하지 않은 왼쪽 귀의 평균역치는 95dB이다. 현재 모든 자녀들이 일상 생활에서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A, B, C의 자녀는 현재 농학교 초등부에 재학 중이며, D의 자녀는 농학교 유치부에 재학 중이다. 연구 참여자 E의 자녀는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연구 참여자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자녀	성별	나이	재학현황	진단시기	현재 보청기착용유무	청력역치	사용언어
A	여	8	농학교초1	만 1세	양이 귀걸이 보청기	115dB	수화
B	남	9	농학교초2	만 2세	양이 귀걸이 보청기	90dB	수화
C	남	9	농학교초2	만 2세	인공와우(우)	95dB(좌) 35dB(우)	수화
D	여	7	농학교유치부	만 1세	양이 귀걸이 보청기	110dB	수화
E	여	6	장애어린이집	만 1세	양이 귀걸이 보청기	105dB	수화

2. 면담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아래와 같다. 면담은 Strauss와 Corbin(1988)이 제안한 깔대기형 접근방식(funnel-like approach)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폭넓게 접근한 후 점차 구체적 질문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구체적 질문은 대화 내용에 따라 확대시켜나갔다.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녀가 농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심정은 어떠했는가?
- 자녀의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수화는 어떻게 가르쳤으며, 현재 자녀의 수화 발달은 어느 정도인가?
- 자녀의 문해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농교육에 바라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자료 수집 과정

심층면담은 개별 면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 이전에 충분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은 D시 소재에 있는 청각재활 클리닉의 교육실, 농부모의 집에서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2~3시간 소요되었다. 면담은 연구자 중 2명이 동석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은 모두 수화로 진행하였다. 연구자 모두는 수화를 구사할 수 있으며, 연구자 중 한명은 20년 경력의 한국수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베테랑 수화통역사로 면담 과정에 수화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면담은 수화통역사인 연구 참여자가 음성으로 통역을 하였지만, 자연스러운 면담을 위해 수화로만 진행되기도 하였다. 녹화 내용은 한국수화를 통역할 수 있는 연구자가 음성언어로 번역하여 전부 전사하였다.

4. 결과 처리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성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 3인이 하나의 꼭지점이 되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를 사용하였다(Stainback & Stainback, 2002). 전사한 내용은 모두는 연구자 3명이 각자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성

을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시에는 Spradley(1989)의 분류분석을 참조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농교육 전공 박사 2명에게 의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결 과

1. 청각장애에 대한 반응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알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렇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농문화의 일각에서는 농부모들은 오히려 농아동을 희망한다는 주장 또한 있다. 왜냐하면 수화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現代思想編集部, 2000). 그렇다면, 인터뷰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떠했을까? 이와 관련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도 충격이었고, 남편도 충격이었죠. 간절하게 소리를 듣기를 바랐는데 청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계속 눈물이 났어요, 2~3일 밥도 안 먹고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죠(부모 A),

첫째가 아(듣는 아이)여서 둘째도 당연히 아(듣는 아이)인줄 알았는데, 농이니까 그냥 그 순간 충격이었지요, 충격이라고 밖에 특별히 표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남편도 똑같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충격이었을 뿐 지금은 괜찮아요(부모 E),

시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안 돌려서 그때 알았어요, 너무 실망 했어요, 아빠도 농딸이 태어나서 실망하고, 시어머니도 실망하고(부모 D),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하나 같이 충격이었다고 말한다. 부모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다소 의외였다. 그들은 모두 농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닌 듯이 보였으며, 지역의 농사회와도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농인이 농자녀를 낳으면 오히려 다행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해 보았다. 이에 대해 부모 A와 부모 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르니까, 자신의 자녀가 농이라고 기뻐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어요(부모 A).

한국은 문화가 미국보다 늦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이 지체 되어 있으니까(부모 D)

부모들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 역시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미국과 한국의 농부모들의 농자녀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농인이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태도에서 듣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농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농자녀에 대한 농부모의 태도는 계속 부정적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농부모의 태도는 아이가 자라면서 변화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수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부모 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이가 수화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얘기 해줬을 때 '아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반성이 들었고 처음부터 아이한테 상처 안 주고 이렇게 키워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수화도 잘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를 잘 키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통하고... (부모 D).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잘하게 되자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잘 키워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수화로 대화를 하니, 무엇보다 아이와 대화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부심은 다음의 인공와우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2. 인공와우수술에 대한 농부모의 태도

최근 대부분의 농아동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있으며(김병하, 2007), 농부모 밑의 농아동의 수술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면담자 중에서도 부모 C는 자녀의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였다. 인공와우는 이제 농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인공와우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인공와우 수술을 권유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재차 수술을 권유했어요, 저는 보청기도 있고 수술의 위험성도 있어서 반대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

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수술 하지 않고 농인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부모 A).

수술하면 기계를 넣는 것이 아닙니까?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희망 있다고 수술을 권했지만, 제가 그대로 키우고 싶다고, 싫다고 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했죠. 할머니는 원했어요, 할머니가 수술하면 좋다 그랬는데 우리 두 부부가 안 된다고 하자, 할머니가 아 불쌍하다고 하자고 하니깐, 우리는 하느님이 선물 주신대로 한다고 했죠. 지금도 어머니는 다른 수술한 사람 보면 부러워하세요(부모 D).

완전 100% 신용 못했기 때문에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자라고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수술 하라고 했지만 나도 반대했고 남편도 똑같이 반대했어요. 남편은 수술한다고 100% 건청인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죠(부모 E).

위의 면담 내용은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태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병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술 없이 농인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공와우의 고장이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항상 이런 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 농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인공와우 수술을 한 성인들을 봐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청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생각은 구화교육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부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릴 때 제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구화교육을 시켰어요, 수화를 못하게 하고 말만 하라고 했지요, 말을 틀리면, 입을 때렸어요, 엄마가 동생은 제쳐두고 제 말 교육에만 매달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동생에게도 미안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구화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 농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수화를 사용해서 좋았어요, 엄마 앞에서는 말을 하고 수화는 몰래 했어요,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보호해야하는 불편이 있지만, 농인으로 살면 그런 불편은 없어요, 수술 필요 없이 농인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부모 A).

부모 A는 구화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언니를 따라 수화를 사용하는 농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언니보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부모는 구화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농학교로 가게 되었고, 수화를 사용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는 있는 그대로 농인으로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듣는 가족의 영향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진다. 가족들의 권유에 못 이겨 수술을 선택한 부모C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 친정엄마 가까이 살 때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외할머니가 수술하면 잘 들 수 있다고 믿으라고 했어요, 말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매일 매일 수술 시키라고 하셔서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 했었어요, 남편이랑 의논도 했어야 했고요, 원래 우리는 수술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가족들도 다 수술 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가족들의 설득에 못 이겨 수술을 했어요 (부모 C).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에 결국 수술을 선택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인공와우수술 대부분이 아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수술 결정에는 아이의 의견 또한 반영되었다.

보청기가 들렸다 안 들렸다하니 짜증을 자주 냈어요, 부산○○ 학교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뺏다 붙였다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소리가 잘 들려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들려서 아주 좋아해요(부모 C).

최근 인공와우 수술이 급증하면서 농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다. 친구들 대부분이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수술을 하고 싶어 했다. 듣는 가족들의 권유에다, 자녀까지 인공와우 수술을 원했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긴 했지만, 현재 이 아동은 수화를 쓰면서, 인공와우는 주변 환경음을 인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부모는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이 사례는 듣고 말하기 위해 인공와우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례와는 다르다. 수술을 했지만 수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므로, 수화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공와우를 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해 왔기 때문에 와우수술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100% 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와우 수술해서 어릴 때는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는 완벽하게 100% 청인들끼리 지내는데 와우는 70~80% 정도만 청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와우 안하고 농인으로 그대로 사는 것도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당당하게 농인들 만나서 농사회에서 수화로 생활하고 할 수 있는데, 와우하고 건청인 사이에 끼여가지고 오히려 무슨 상황인 지도 모르고 말도 잘 안통하고 그래서 좀 고립된 사람들도 있으니까...(부모 B).

농문화 하고 그쪽 문화가 다르니까, 와우한 아이들이 좀 힘들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와우한 애들 봤을 때는, 아이 때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수술을 선택했는데, 사춘기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에서는 와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부모 E).

이들은 인공와우 수술을 했지만, 농인 사회에도 청인 사회에도 끼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직접 목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가 성장한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인공와우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인 영화제를 간 적이 있는데, 와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와우를 한 사람도 왔는데, 수화를 잘 못하고, 건청인처럼 수화하면서 말했어요. 나는 수술 안하고 싶었지만, 엄마 때문에 수술했습니다. 지금 우울합니다. 완벽하게 듣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 큰딸은 건청이고, 둘째딸은 농인입니다. 지금 7살입니다. 큰딸도 수화를 잘하기 때문에 작은애 하고도 잘 통하죠. 나는 와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수화도 잘하고 못 하는 게 없죠. 제 딸은 언어 치료도 다니니까 말도 꽤 잘해요. 무엇이 필요하냐고 다들 보라고, 엄마들이 장애를 싫어해서 수술을 하지만, 나는 내 딸 그대로 키우고 싶다고 하니깐 와우한 사람들이 보고 수술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더군요(부모 D).

농인의 눈에 비친 와우인은 수화를 잘 못하고 청인처럼 수화를 하는 사람이다. 이에 비해 자신의 자녀는 이제 7살이지만, 농인처럼 수화를 할 수 있다. 건청 언니와도 수화로 잘 통하고, 청각재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도 어느 정도 한다. 그렇지만, 다른 부모들의 선택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수술하면 기계를 넣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수술 안 해도 잘 키울 수 있고, 그래서 말이 뭐가 필요한지 다 똑같은데 뭐든지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부모 D).

청각장애로 진단이 되면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대부분은 인공와우를 권한다. 우리의 사회 또한 인공와우를 권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녀를 농인으로 잘 키워내는 것을 농아동을 둔 다른 부모들이 본다면 부모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뭐든 잘 할 수 있다는 부모의 표현은 농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농에 대한 자긍심은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면담에 참여한 농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수화를 잘하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농아동의 수화 습득과정

농부모 밑에서 자란 농아동들 역시 듣는 부모 밑에서 자란 듣는 아동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습득하는 언어가 시각-운동체계에 기반한 수화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따른다. 농아동의 수화 습득과 발달 과정 역시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웅알이 단계를 거쳐 한 단어 문장 시기와 두 단어 문장 시기를 거친다(김철관, 윤병천, 2011). 그렇다면 인터뷰에 참여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수화를 가르친 것일까? 이와 관련해 부모 E와 부모 B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이들 둘 다 수화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남편하고 매일 수화로 대화 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볼 때 그냥 돌보기만 하지 않잖아요, 혼자서 아이한테 중얼 중얼 수화로 얘기하고, 밥 줄까? 배고프니? 더 안 먹을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구요, 수화는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제스처 같은 걸로(부모 E)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눈 맞추고 우유 줄까? 기저귀 갈아 줄 때도 눈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장난감 집어서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저런 식으로, 까까, 찌찌 같은 건 둘 전에 한 것 같아요, 완벽한 수화는 아니고 제스처 비슷한 거요, 수화로 대화한 것은 4세쯤 인 것 같아요(부모 B),

듣는 부모들이 듣는 자녀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을 가르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들 역시 특별히 수화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수화를 익힌다. 그리고 듣는 부모들이 양육을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듯이 농부모 역시 그렇게 수화로 말을 건다. 그리고 농부모 역시 육아어(baby talk)를 사용한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수화가 아니라, 제스처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육아어의 사용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언어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uder, 2010).

완전한 수화가 아니고 제스처처럼 했죠, 아이가 제 옷을 당기고 손가락질을 하면 아 맘마 구나 하고 우유를 주었지요(부모 A),

아빠가 '빵빵 온다' 하고 오토바이 오면 '오토바이 온다' 고 하고 '조심해' 수화하고, 눈으로 보라고 하면 애가 알고 기다리고 놓고 그때는 수화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사물가지고 그 사물을 보고 수화해주고, 차타는 용내 내고 차 가리키고, 차는 빵빵 소리 난다 그렇게 했죠. 하루는 골목에서 놀 때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서, 왜 우니 라고 물으니 '아빠 빵빵 해서 울었다' 고 그 이후로는 차가 오면 비켰다가 놓고 '아빠, 차 와도 혼자 잘 해요' 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주었대요(부모 D),

아이의 요구에 따라 우유를 주면서 우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화로 단어를 말한다. 차가 오면 '빵빵 온다, 조심해' 라고 수화로 말한다. 아이는 차는 빵빵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고, 차가 오면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차가 오면 피하고, 그것을 부모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수화는 하나 둘 늘어나고, 주변 사물에 대한 이해 역시 깊어간다.

2살 때부터 '매워' 라는 수화에 눈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빠 엄마 언니 할머니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있다, 없다' 도 가르치고, '아빠는 회사 갔어' 이렇게 아주 쉬운 것들만 가르쳤죠, 점점 수화가 늘더니, 3살 반쯤에는 수화를 꽤 잘 했구요, 5살 넘어서부터 완전 수다쟁이처럼 익숙하게 수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작은 애는 얼마나 눈이 빠른지..., 수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엄마에게 얘기하고 그만하라 그래도 얘기하고 끝없이 얘기하고(부모 D),

초어(初語)가 등장한 이후로는 구사할 수 있는 수화 단어들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아이들은 억지로 노력하거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화를 익히게 되고 수화로 말하기를 즐긴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화로 부모와 대화하기를 즐긴다. 또한 듣는 다른 형제나 가족들과도 수화로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한다.

언니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들쭉가 못 알아들어요, 나는 농 입장이니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수화로 해주면 '아~ 안다고 언니 나 그거 안다' 고 얘기하죠, 나는 가족들 간의 양쪽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죠, 할머니가 언니에게 말하면 언니는 동생에게 수화를 하는데, 그게 안통하면 또 통역을 해줘야 되고 엄마가 나서야 되니깐,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수화가 안 따라주니까 답답했죠, 그래도 7살 되고 나서부터는 언니하고 말이 잘 통해서 걱정이 없어요(부모 D),

할머니와 언니는 듣는 사람이다. 할머니와 달리 언니는 수화를 잘한다. 왜냐하면 이들 가족의 언어는 수화이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말을 하면, 언니가 수화로 동생에게 전달한다. 동생이 언니의 수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엄마가 중간에서 통역자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동생의 수화는 점점 늘고, 가족 간의 소통은 원활해진다. 수화를 사용하는 엄마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수화발달과 가족 간의 안정적인 의사소통은 문해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수화를 통한 문해지도

농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언어 환경에 놓인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읽기, 쓰기 능력이 우수하다. 이들은 듣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 대부분의 농아동이 겪는 언어발달의 지체를 겪지 않는다. 초기 발달 단계에서 수화라는 언어를 습득한 아동들은 세계와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Prinz & Strong, 1998, 권순황, 2004). 뿐만 아니라, 농아동을 둔 농부모들은 자녀의 문해지도에 있어서, 수화를 모르는 듣는 부모의 문해 지도와는 다른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림책 보면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 여기는 누구? 엄마 아빠 싸우네, 문장 나올 때는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얘기 해주는 식으로 해주었어요(부모 E).

수화로 책을 읽어줬어요, 애가 5살인데 영어 알파벳도 알고 그래요(부모 B).

5살 때부터 지문자를 가르쳤어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수화를 배운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6살이 되니 아주 잘 해서 놀랐죠(부모 A).

농부모의 문해지도의 특별한 노하우는 바로 수화에 있다. 수화로 동화를 읽어주기 때문에 농아동은 동화 내용을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화를 사용하지만, 동화를 전달하는 방식은 듣는 부모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듣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문장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해 수준에 맞게 내용을 적절하게 재구성해서 읽어주듯이 농부모 역시 그렇게 한다. 또한 때때로 대화 하듯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는 지문자도 가르친다. 농부모들은 듣는 부모와 달리 수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지문자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수화로 동화 읽기는 아동이 성장 수준에 따라 더욱 발전해 간다. 이와 관련해 부모 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엄마가 먼저 읽고 수화로 얘기를 해줬더니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책 읽은 거, 문장 모르는 거 엄마가 수화로 설명 해주니깐 다 알게 되고... 농아인들이 모를 때는 농식이 필요하죠, 그래야 통하고 이해하기 쉽죠. 언어 치료실에서는 읽어주고 뭐 얘기 해 주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다가 엄마한테 오면 엄마가 수화로 이야기를 해 줘요. 옛날에 심청이가 바다에서 뛰어내렸는데 맹인 아با 눈뜨게 해 주려고, 이렇게 수화로 얘기해주면 아직 어려서 문장만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엄마 수화는 이해가 되니깐 전체적으로 쉬워지죠, 그때 다시 책 읽으면, 심청이가 왜 바다에 뛰어 내렸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바 맹인이니깐 눈 뜨게 하려고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됩니다(부모 D).

부모 D는 ‘농인이 모를 때는 농식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농교육에서의 눈높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말이다. 박경란은 청각장애학생의 문해지도는 유의미한 언어사용을 촉진하면서, 문자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미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의 핵심에는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일정한 형식에 담겨져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용될 때 비로소 언어의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박경란, 2008). 농부모들은 이와 같은 이론을 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농인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농식 수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마치 훌륭한 교사는 아동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아동은 농부모가 농식 수화로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언어치료실이나 유치원에서 배운 동화의 내용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그 결과 문장으로 제시된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아동은 또래의 건청아동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문해능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유치원 교사는 일반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내놓았다.

지금 언어 치료실에서도 다른 애들보다 이해가 빠르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수화를 잘 배워서 그런 것 같다고 유치원 선생님도 애가 뛰어 나니깐 농학교에 보내지 말고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워낙 독해력이 뛰어나니깐 글 쓰는 능력도 되구요, 애가 눈치도 빠르고, 들을 수 없고 목소리는 안내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도 있어요, 내년엔 학교에 가니까 엄마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부모 D),

구화법을 강조해 온 전문가들은 수화는 음성언어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기에 수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이규식, 1982; 최병문, 1970). 그러나 수화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자연 수화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환경에 조기 노출은 오히려 농학생의 음성 언어 발달에도 이득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Lane, 1999; 木村, 2007). 위의 사례는 이와 같은 연구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의 사례는 음성언어 구사 능력의 문제는 발음이나 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건청 세계와의 소통에 있으며, 수화를 한다고 해서 건청 세계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농학교 교육에 대한 바람

농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농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농자녀들을 농학교에 보낸다. 이것은 듣는 부모들이 자신의 농자녀를 일반학교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농부모들은 통합교육 환경이 아니라 농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농학교 보내고 싶어요, 그대로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부모 E),

어렸을 때 일반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랐고, 친구들과 대화도 없었어요, 항상 혼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친구들과 같이 놀아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혼자 해야 했어요, 단지,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명 있었죠, 그래서 농학교가 좋아요, 아들이 일반학교 갈래? 농학교 갈래? 했을 때 농학교가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학교에 가면 친구가 없으니까요, 일반학교에 간 적은 없지만 전학 온 친구들을 만나서 알아요(부모 B),

일반학교에서의 고립된 경험을 자신의 자녀에게는 안겨 주고 싶지 않다는 부모의 말은 최소제한환경으로서 통합교육에의 배치가 농아동에게는 오히려 제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권순우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교육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학습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권순우, 2010). 이와 같은 상황을 농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농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학교의 현실 또한 만만치 않다.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은 수화를 잘하는 교사가 없는 한국의 농학교의 현실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부모 D는 의무교육 기간에 대한 취학 유예인정을 받아, 현재 농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농학교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학교에 수화를 잘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다 건청인처럼 수화하기 때문에 아마 내 딸아이도 농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되서 힘들 것 같아요, 수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불평불만도 많고 희망도 없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앞으로 내 딸아이도 가야 할 지 모르니까, 농인 선생님도 없고, 건청인처럼 수화를 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학교에서 수화를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농학교에 보내는 거 반대하고 일반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일반학교로 갔다가 농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일반학교는 공부가 어려워서 못 따라가서 힘들대요, 일반학교에서 온 아이에게 여기 어떠냐고 물어 봤더니 수화로 대화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일반학교에서는 외롭기만 하고 재미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제일 중요한 게 교육적인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부모 D),

최근 농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농학교 교사의 낮은 수화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면 “교사들이 수화를 모르니까, 대답해주지 않고, 말로 대답해 주면 농아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항상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안 물어” 보는 것이 농교육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이태곤, 2006). 설령 수화를 할 줄 아는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말처럼 ‘건청인처럼 수화를 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원활한 대화조차 쉽지 않다. 음성언어의 문법 체계를 따라 수화 단어만을 나열하는 문장대응식 수화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와는 문법 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혼란을 야기 시키는 불완전한 언어이다(장진석, 2006). 뿐만 아니라, 문장대응식 수화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말을 하면서 수화를 하기 때문에 수화 단어를 틀리게 하거나 수화 단어를 생략한다(안성우, 1997).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학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농학교에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부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학교 선생님은 생활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착한 아이로 만들어 주시죠, 공부도 더 많이 가르쳐 주시죠, 농학교 선생님이 수화를 잘하면 좋겠지만 농부모 숫자는 적어서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건청인 부모들은 그런 필요를 모르니까요, 농부모는 수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고, 방법도 알지만요(부모 A),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농인부모들은 교육현장에서 수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수화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듣는 부모들의 의견에 밀려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농학교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농아동을 둔 농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언어 선택을 중심으로 양육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은 모두 자신의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심리적인 충격은 자녀가 수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 대부분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농자녀들이 농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주변 가족들로부터 인공와우 수술 권유를 받고 있었다.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한 농부모 C는 가족들의 권유 때문에 수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 역시 건청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들 자녀 모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화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부모 역시 건청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육아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들은 수화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자녀의 문해지도를 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잘 모르는 내용은 농식 수화를 사용하여 쉽게 설명해 주어 이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도 방법은 자녀의 문해 능력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에 참여한 농부모 모두는 그들의 자녀를 농학교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농학교 교사의 수화사용 능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농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청인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아동을 둔 농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앞으로도 수화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가 농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와우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청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성장한 후 청인 세계와 농인 세계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화를 습득하면서 언어발달 지체의 문제를 겪지 않고 있으며,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즐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부모 밑에서 자라는 농아동들은 수화를 통해 문장을 접하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뿐만 아니

라, 어려운 내용은 부모가 농식 수화로 쉽게 설명해 주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현재 대부분의 농아동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는 한국적 상황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들이다. 농아동을 둔 청인 부모 대부분은 자신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때 ‘자녀가 청각장애입니다. 그렇지만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인공와우’ 라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로부터 자녀의 청각진단을 받았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앞으로 자녀의 청각재활과 구화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말을 들었던 농아동을 둔 일본의 한 청인부모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적어도 이중언어·이중문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농인입니다.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당신의 세계 또한 넓어지고, 다양한 만남,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수화를 배우세요. 아이와 마음껏 대화할 수 있도록. 들리지 않아도 문제없어요. 농인은 시각이 매우 발달합니다. 혹시 걱정이 될 때는 실제로 농인을 만나면 좋을 거예요. 분명 안심이 될 것입니다.”(岡本, 2001, p. 207). 오랫동안 구화교육을 받았던 이 부모의 자녀는 농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농인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농교육의 목적은 분명 언어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기른다는 뻔한 것 같지만 곱씹어 보면 중요한 교육목적을 농교육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농부모 밑에 자라는 농아동들은 이미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음성언어만이 언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농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농아동을 둘러 본다면 이 아이들의 재빠른 손놀림이 보일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농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농학교에 보내지만, 정작 농학교에 수화를 잘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농학교 선생님은 생활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착한 아이로 만들어 주시죠.” 농부모의 이 희망이 꼭 실현되기를 바래본다.

참고문헌

- 곽정란 (2010). 인공와우를 둘러싼 부모의 선택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2), 251-279.
- 권세정, 최성규 (2006). 청각장애자녀와 건청자녀의 양육 경험과 학교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비교. **언어치료연구**, 15(2), 93-114.
- 권순우 (2010).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19(3), 133-153.
- 권순황 (2004). 농문화 인식에 따른 농학생의 이중언어 선호 연구. **난청과 언어장애**, 27(1), 19-38.
- 김미은, 서도원, 윤병천 (2007). 농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제반요소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3), 143-164.
- 김병하 (2007). 한국 농교육의 정체성 위기: 현상과 과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3), 465-489.
- 김병하, 강창욱 (1992).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질적 분석과 해석). **특수교육연구**, 19(1), 21-35.
- 김영옥 (2004). 농학생의 이중언어 능통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성공 조건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39(2), 31-59.
- 김철관, 윤병천 (2011). **응용언어학개론**. 서울: 양서원.
- 박경란 (2008). 의미구조형성 문장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문법형태소 사용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7(4), 121-142.
- 박귀메, 이규식, 권순우 (2004). 청각장애 자녀의 인공와우 착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5(2), 93-114.
- 배둘련, 안성우, 백유순 (2002). 청각 장애 학생과 교사 및 부모의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아동연구**, 4(1), 141-161.
- 아베야스시 (2003). 농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안성우 (1997). 문법수화가 언어인가. **난청과 언어장애**, 20(2), 49-65.
- 염동문, 허명자, 이한우 (2004).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5(2), 357-380.
- 원성옥 (2002). 농아동의 수화언어 습득과 언어 교육. **특수교육개발연구소**, 41(2), 77-100.
- 윤미희, 윤미선 (2007). 청각장애 영유아의 조기중재에 관한 실태조사. **언어치료연구**, 16(4), 103-124.
- 이규식 (1982). **청각·언어장애아 언어치료**. 서울: 형설출판사.
- 이유경, 최성규 (2009).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청각장애 성인의 의식 조사.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439-462.
- 이태곤 (2006). 특집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라. **함께걸음 3·4월호**, 16-35.

- 이한진, 김병하 (2003). 청각장애 자녀의 인공와우 착용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4(4), 205-220.
- 장진석 (2006).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2), 107-125.
- 최병문 (1970). **구화교육**. 서울: 한국구화학교.
- 최성규 (1999). 청각장애아 언어 교육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 이동-이중문화와 이중언어 접근의 타당성. **특수교육학연구**, 33(2), 121-143.
- 최성규 (2007a). 우리나라 청각장애아동의 문해능력 신장을 위한 이중언어접근법의 모형개발. **특수교육연구**, 14(1), 111-141.
- 최성규 (2007b).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이중문화와 이중언어 접근법에 대한 Vygotsky의 시각과 공헌.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4), 633-653.
- 최윤희, 윤미선 (2007). 조기진단을 받은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언어중재 실태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6(2), 173-187.
- 허명진, 이드보라 (2009). 국내 인공와우 이식 변천에 대한 소고. **언어치료연구**, 18(2), 123-144.
- Kuder, S. J. 저/김화수 역 (2010). **언어장애와 의사소통장애: 학령기 아동 가르치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 Lane, H. L. (1999). *The Mask of Benevolence: Disabling the Deaf community(2nd)*. New York: Dawn Sign Press.
- Connie Mayer, C., & Wells, G. (1996). Can the Linguistic Interdependence Theory Support A Bilingual-Bicultural Model of Literacy Education for Deaf Stude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2), 93-107.
- Parasnis, I. (1996). *Cultural and Language Diversity and the Deaf Experience*. Publish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res, D. F., & Sweet, C. (1990). Factors predictive of school achievement. In D. F. Moores, D. F., & Martin, D. S. (Eds), *Deaf learners: Development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Washington: Gallaudet University Press.
- Paul, P. V., & Jackson, D. W. (1993). *Toward a psychology of deafnes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pradley, J. P. 저/ 이희봉 역. (1989).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
- Strauss, A., & Corbin, J. M. (198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
- Stainback, S., & Stainback, W. 저/ 김병하 역 (2002).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 서울: 특수교육.
- Prinz, P., & Strong, M. (1998). ASL Proficiency and English literacy within a bilingual deaf education model of instruction.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8(4), 47-60.
- 岡本みどり. (2001). インテグレーション, 龍の学園, そして 聾学校. 金沢貴之 編 (2001). **聾教育の脱構築**. 東京: 明石書店, 201-233.
- 木村晴美. (2007). **日本手話とろう文化**. 東京: 生活書院.
- 現代思想編集部. (2000). **ろう文化**. 東京: 青土社.

Qualitative Study on Deaf Parents' Experiences Rearing
Their Deaf Children: the Language Choice

Kwak, Jeong Ran

Daegu University Docent

Seo, Yeong Ran

Kyeongshin Aural Rehabilitation Center

Lee, Jeong Ok

Daegu University Sign Language Interpre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af parents' language choice in experiences of rearing their deaf children.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and an in-depth interview with five deaf parents who have deaf childre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deaf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shocked when they noticed their children were deaf and such psychological shock gradually disappeared as their children started to use sign language. Second, most of the deaf parents had negative perception of cochlear implant surgery and rather hoped their deaf children to grow up deaf. Third, the deaf parents used sign language rearing their children and as a result their deaf children naturally obtained sign language skills. In this way the children were positively influenced in their emotional stability and language development. Fourth, the deaf parents taught their children how to interpret writings by reading the children fairy tales using sign language and helped their understanding by explaining what their children did not comprehend in an easy way using sign language for the deaf. Fifth, all of the deaf parents wanted to send their children to a school for the deaf but were concerned about school teachers' abilities to use sign language.

Key Words

: Deaf Parents, Deaf Children, language choice, experiences of rearing,
Qualitative Research

논문 접수: 2011. 02. 05 심사 시작: 2011. 02. 09 게재 확정: 2011. 03. 16

